







1. 머리말

본보고서는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한당시기 관련 유학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18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에 관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은 23개의 철학 전문 학술지이다.

2018년도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한당 시기의 유학과 관련된 논문은 총 62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이 4 편이고, 일반논문이 58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16년도 65편, 2017년 도 73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선진시기가 총 55편, 진한시기 6편, 당나라시기 1편이다. 2016년에는 선진시기가 55편, 진한시기가 10편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선진시기가 67편, 진한시기가 6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같이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시기의의 유학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

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교육,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전체 62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 논문은 모두 35편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공자: 13편, ②맹자: 7편, ③순자: 8편, ④기타인물: 7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28편이고, 기타인물은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중서(董仲舒)·환담(桓譚)·중장통(仲長統)·왕부(王符)·왕충(王充)과 당대(唐代)의 이고(李翱)등이 관련된 논문은 7편이 있다. 2018년도 인물별 전체 논문은 35편으로 2016년도의 30편과 2017년도 41편과 비교해보면 2017년도 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2016년도 보다는 약간 늘었다. 2017년도에 비해, 공자 관련 논문은 약간 줄었고, 맹자는 거의 비슷하고, 순자관련 논문은 2016년 5편에서 2017년 14편으로 대폭들었다가 2018년에는 줄어 8편이다. 2017년도 인물별 분류에서는 공자관련 박사 논문이 4편, 맹자 2편, 순자 5편으로 모두 11편인데 비하여 2018년에는 공자와 순자 관련 박사 논문이 각각 1편뿐이고 맹자 관련박사 논문은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다.

한대(漢代)의 유가사상가 관련 논문은 2016년도에는 8편, 2017년 도에 6편, 2018년도에는 7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2016년도에는 육가(陸賈) 관련 논문이 5편이고, 가의(賈誼)·동중서(董仲舒)·왕충(王充)·정현(鄭玄)이 각각 1편이었다. 2017년도는 동중서(董仲舒) 2편과 환담(桓譚)·중장통(仲長統)·왕부(王符)·경방(京房) 등 이 각각 1편이었다. 2018년도에는 환담(桓譚) 2편과 동중서(董仲舒)·중 장통(仲長統)·왕부(王符)·왕충(王充)이 각각 1편이고, 당대(唐代)에는 유일하게 이고(李翱) 1편이 있다. 한대(漢代)의 유학사상가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소개되어, 한대(漢代) 사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8년도에는 공자·맹자·순자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한대(漢代)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한대(漢代)이후부터 宋代(송대)이전까지의 유학 사상이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몇 년 동안 계속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당대(唐代)에 유일하게 이고(李翱) 1편이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연구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민향	치유적 관점에서 본 공자의 '수양적 인간론' 연구 : '감정억압'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한의 철학과
2	임태승	"계씨장벌전유(季氏將伐顯臾)"장의 실상(實狀)과 공자 비판의 함의	동양철학연구96	동양철학연구회
3	임태승	"욕거곡삭희양(欲去告朔餼羊)"에 대한 공자 비판의 함의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4	임태승	공자시대 '천승지국(千乘之國)' 실상(實狀) 의 재구성	한국유교학회 71	유교사상문화연구
5	김동민	『논어』에 기반한 인성교육 모델의 이론적 기초	한국유교학회 71	유교사상문화연구
6	정용수	공자는 실패한 정치가인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7	김영호	『논어』'학이불사장(學而不思章)' 고석(考 釋)-특히 수양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8	조민환	계씨(季氏) 참월(僭越) 행위에 대한 유가(儒家) 예악론적(禮樂論的) 고찰(考察): '계씨팔일무어정(季氏八佾舞於庭)'등 계씨(季氏) 참월(僭越) 행위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9	윤지원	선진유가전쟁관(先秦儒家戰爭觀)에 대한 소고(小考) - 공자와 맹자의 전쟁관을 중심으로-	한국유교학회 74	유교사상문화연구
10	전병술	공자의 전인적 리더십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11	이시우	『논어』를 통해 본 유학의 창의성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12	강경현	『논어』"오여회언(吾與回言)"장(章)에 대한 조 선의 주자학적 접근	태동고전연구 40	태동고전연구소
13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 (1)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 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018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13편이다. 2016년도 11편, 2017년도 15편으로, 꾸준히 10편에서 15편 정도의 논문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박사논문이 작년의 4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편이다. 그 1편도 공자의 철학이나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아니라, 공자의 '수양적 인간론'과 '감정억압' 문제를 중심으로 치유적 관점에서 한의학과 연계하여 탐구한 논문이다.

윤민향의 논문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신경증의 본질적 요인으로서 '감정-몸-사회질서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완시키는 공자 인간론의 수 양론적 성격과 그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도 되었다. 필자는 문명의 억압성 담론을 배경으로 하여 '감정과 질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자 수양론의 전환적 특징을 살폈고, 감정억압 문제 에 대하여 한의학과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치유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 하였다. 일반 논문은 모두 11편인데,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임태승의 논문 3편은 『논어』를 도덕철학적 각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 등의 물적 토대를 감안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였으며, 고 증학적 및 문헌고고학적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김영호는 『논어』 '학이불사장(學而不思章)' 고석(考釋)을 특히 수양방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조민환의 논문은 계씨(季氏)가 팔일무를 추게 한 것과삼가(三家)가 제사 철상(撤床)에서 옹가(雍歌)를 한 것에 대해 공자가 심질(深疾)한 것을 유가 예약론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고찰하였다.

강경현은 "오여회언"장에서 안회에 대한 공자의 평가가 담긴 이 구절을 주자학적 이해의 지평 위에서 전개된 『논어집주』독해의 변용 지점들을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주자의 입장을 선별하여 확인하고, 조선의 주자학적 『논어』에 대한 해석을 심화시키는 독자성을 검토하였다.

나머지 논문들은 공자의 인성교육, 정치 등에 관한 논문이다. 2018 년도 『논어』연구의 특징은 일반 논문 11편중 5편이 경학을 기반으로 『논어』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 자료 구축의 의미를 갖고 있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성민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 - 맹자 의내설(義内說)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 으로 -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2	최영진	욕구에 대한 맹자의 인식과 성리학적 전개 (性理學的 展開) -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학 54	인문과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신은화	수치심과 인간다움의 이해-누스바움과 맹 자의 수치심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8	한국동서철학회
4	진예숙	『맹자』 인용시 연구 – 성선설(性善說)을 중심 으로 –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5	이주강	맹자와 깨어있는 자본주의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6	김영민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
7	임옥균	아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맹자』 해석 (1)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2018년도 맹자 및 『맹자』관련 논문은 모두 7편으로, 2016년·2017년의 6편에 비해 비슷하게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4년의 13편 이후로 『맹자』관련 연구는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맹자』에 관한 조선 유학자들의 인성론과 경학 연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경학사상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박사논문은 2016년과 2017년도 동일하게 2편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박사 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일반논문 중에 3편은 맹자의 인성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철학적 의미를 독창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최영진의 논문에서 맹자는 두 가지 욕구를 '이(利)'와 '의(義)', '생(生)'과 '의(義)'에 대한 욕구로서 표현되며, 이것은 양자택일적인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필자는 욕구(欲求)에 대한 맹자의 인식에 대하여주자・퇴계와 율곡・남당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중심으로 이론적 기반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맹자 인성론과 조선 유학자들의 실천정신에 대해 이론적 정합성을 도출해내고, 조선 유학사상을 심층화 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진예숙의 논문

은 『맹자』에 인용된 30편의 시 중에서도 성선설(性善說)과 관련하여 인용된 시를 중심으로 그 사상적 배경과 목적, 의의 등을 조명하고, 이 인용시들이 성선설의 논리구조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주강, 김영민의 논문들은 맹자의 왕도정치를 구현하는 성격을 띤 논문이다. 이 두 논문은 맹자의 인정(仁政)과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복 지 등에 기반 하여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이다.

신은화의 논문에서 맹자의 수치심은 인간성을 반영하는 감정이자 동시에 인간다움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감정이다. 반면 누스바움에 의하면 수치심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필자는 누스바움과 맹자가 수치심에 대해 매우다른 의견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누스바움이 지적한 '생산적인 수치심'은 맹자의 수치심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두 철학자의 견해가양립할 수 있는 공통지대가 발견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수치심에 관한 동서양의 관점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흥미롭게 포착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양쪽의 입장을 대변할 사상가로서 맹자와 누스바움을 주목한 점에서, 맹자 인성론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보인다.

3) 순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혁	순자사상(荀子思想)의 사회철학적(社會哲學 的) 함의(含意)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2	김여진	순자의 조어(造語): 위(僞), 예법(禮法), 후왕 (後王)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진함	『성자명출(性自命出)』의 심론(心論)과 『순 자」의 심론(心論) 비교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4	이명수	순자철학에서 욕망 처리와 마음의 역할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5	이명수	순자에 보이는 마음의 중층적 양상과 수양 문제의 대두-「수신편」, 「해폐편」 그리고 「정 명편」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73	동양철학연구회
6	이경무	「성악(性惡)」편의 논리와 구조	철학 논총 91	새한철학회
7	유영옥	순자 패도론(覇道論)의 층위 분석	대동문화연구 103	대동문화연구원
8	정영수	체화된 감정으로서 정(情)—순자철학을 중심 으로—	공자학 34	한국공자학회

2018년도 순자 및『순자』관련 논문은 모두 8편으로 2016년 5편보다는 많고, 2017년도 14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10편 내외의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1편으로 순자의 사회철학을 주제로하였다. 김혁의 박사논문은 순자가 사회 철학적 요소로서의 사회 안정과 질서의 원천은 하늘에 있지 않고, "후천적인, 인위적인 예"에 있음을주장하였다. 필자는 '치인지학(治人之學)'의 순자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철학의 한계는 맹자사상과의 조화 및 중용(中庸)에 의한 '수기(修己)' '치인(治人)'의 조화로운 통합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밝히고, 조선 성리학에서 '수기치인'의 이상형으로써 율곡의 삶을 현대인의 모범사례로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주체적 의식과 물질지상주의 대처에 바탕을 둔 순자의 사회철학은 현대사회에서의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일반 논문은 7편인데, 심론·성악론·정치 등 순자철학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들이다. 이명수의 논문은 2편인데 모두 심론을 탐색함으로

써 마음의 역할이 가진 순자 철학적 가치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1편 은 순자철학에 나타난 마음의 위치, 그 중층 적 양태, 그리고 수양에 대 하여 주로 「수신편(修身篇)」, 「해폐편(解蔽篇)」, 「정명편(正名篇)」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다른 1편은 순자철학에서 마음은 내적으로 욕망 발산의 신체기관을 다스려, 욕망을 조절하거나 멈추게 하므로 대 외적으로 그것은 사려를 쌓는 인위를 통해 욕망을 조절하고 기르는 행 위를 가능하게 한 것을 밝혔다. 이 논문은 순자에 나타난 욕망 처리의 문제에 마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는 면모를 부각시킨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진함의 논문은 "성자명출(性 自命出)』의 심론과 『순자』의 심론 비교를 통해 심론의 구조를 모색하였 다. 필자는 심과 외물, 그리고 도, 이 삼자 간의 연관성을 증명함으로써 수양론이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정영수의 논문에서는 순자철 학의 정(情)이 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념이나 비이성적인 저급한 인 식을 의미하는 감정이 아니라 몸의 지각활동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 하고 사회적 특성들을 체화하여 확장되는 감정으로서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이 되는 것을 밝혔다. 유영옥의 논문에서는 맹자의 왕도정치와 순자의 패도정치를 비교 고찰하면서, 순자 패도론의 층위는 '위정(爲 政) · 중법(重法)', '신(信)'이 중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 층위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순자 패도론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김여 진의 논문은 순자 철학의 중요한 조어(造語)들을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순자 철학의 심론 · 성악론(性惡論) · 정치 관련 연구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원일	중장통(仲長統)의 정치사상 연구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2	조원일	환담(桓譚)의 형신(形神)사상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3	조원일	환담(桓譚)의 신멸론 사상에 대한 연구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조원일	왕부(王符)의 천인관계론(天人關係論) 연구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5	조원일	왕충(王充)의 생사관(生死觀) 연구	중국학논총 59	한국중국문화학회
6	이원석	이고(李翶)의 성선정악설(性善情惡說) 연구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조형근	동중서의 음양천도관(陰陽天道觀)과 자연 철학적 세계	새한철학회 학술 대회 발표 논문 집	새한철학회

2018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7편이다. 2016년 8편, 2017년 6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중서(董仲舒)에 대한 연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한당(漢唐)시대 유학자들의 연구는 한정되어 있다. 특히 2016년도에서 2018년까지 조원일이라는 한 명의 연구자에의해 육가·가의·왕충·중장통·환담 연구가 꾸준히 진행됨으로써한(漢) 대의 주요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형근의 논문은 동중서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천인감 응설의 합일정신과 그와 관련해서 자연철학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신 념,그리고 그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중화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2018년에 조원일의 논문 중에「왕부(王符)의 천인관계론(天人關係 論) 연구」는 2017년에 발표된「중장통의 천인관계론 연구」와 같은 맥 락에서 천인관계를 분석하여 국내에서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를 발표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원일의「왕부(王符)의 천인관 계론(天人關係論) 연구」는 자연현상인 천과 감응의 의미인 천 그리고 천 인관계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필자는 왕부의 천인관계론에 대하 여 '천이 주재가 됨'과 '인간이 주재가 됨'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라 고 이해하였다. 또한 필자는 왕부의 잠부론이 당시 사회의 정치·철학 사상 측면에 끼친 영향과 공헌이 양한 시기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왕충 의 그것에 비견된다고 보았다. 한당 유학자들의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조원일 한사람에 의한 중점적인 연구 보다는 여러 사람의 다각적인 시 각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경학사상 21편 ② 철학 26편 ③ 교육 4편 ④ 정치 및 경제 8편 ⑤ 기타 3편이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73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도 경학사상 분야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박사학위 논문과 철학 분야의 논문은 대폭 줄어들었고, 정치 및 경제 분야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이 11편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논어』 4편, 『맹자』 1편, 『춘추』 1편, 『좌전』 1편, 『의례』 1편, 『상서』 1편, 『예기』 1편이다. 올해는 『주역』이 11편으로 작년의 13편에 비하면 다소 적으나 경학 분야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시경』을 제외하고 작년에는 발표되지 않은 『상서』・『의례』・『좌전』 등의연구가 발표되어 경학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토문헌 관련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춘추』 · 『의례』 · 『상서』 · 『예기』 분야는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2018년도에는 고르게 발표되었다는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원용준	상박초간 {주역} 감괘(欽卦) 연구	한국철학논집 56	한국철학사연구 회
2	권호용	화택규(火澤睽)의 과학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88	한국동서철학회
3	서정화	「좌전」에서의 묘(廟)·궁(宮) 언급을 통한 주대(周代)의 그 쓰임 사례 일고찰(一考察)-주대(周代)의 (묘수제)廟數制 실재여부에 대한궁구 과정에서	유교사상문화연 구 72	유교문화연구소
4	서정화	「춘추」 경문에서의 묘(廟)· 궁(宮) 언급을 통한 주대(周代)의 그 쓰임사례 일고찰 - 주대의 묘수제(廟數制) 실재 여부에 대한 궁구 과정에서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 회
5	윤무학	『의례』와 선진 제자서의 상례 비교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 회
6	김유미	고주소(古注疏)를 근간으로, 신주소(新注疏) 『상서(尙書)』 번역을 위한 제언	민 족문 화 52	한국고전번역원
7	정병섭	『예기』의 별자(別子) · 절종관념(絕宗觀念)에 나타난 사상적(思想的) 특징(特徵)에 대한 연 구	유교사상문화연 구 74	유교문화연구소
8	신정원	「주역」의 자연관찰과 과학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주역』에 나타난 현대자연과학적 의미 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1	동양고전학회
9	신정원	『주역』의 고대 자연인식론 연구— 부호체계 (괘·효)와 문자체계(괘·효사)를 중심으로 –	시대와철학 29	한국철학사상연 구회
10	신정원	현대 시스템이론에서 본 『주역』의 6효구조 연구-천·지·인 삼재지도(三才之道)를 중 심으로—	인문학연구 36	인문학연구원
11	이상호	『주역』 건괘(乾卦)의 윤리적 함의(含意)에 관 한 연구	동양철학연구94	동양철학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근호	7 7	근군 세국	크리시	28/10
12	이규희	『주역』에서의 시중지덕(時中之德)에 대한 고 찰-간괘(艮卦)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51	한국고전번역원
13	임병학	『주역』의 '역유태극(易有太極)'절과 선진유학 의 마음론 고찰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학연 구소
14	정석현	『주역』에 있어서 점서(占筮)의 논리-괘(卦)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91	범한철학회
15	이난숙	『주역』 시용괘(時用卦) 해석의 의미와 특징	퇴계학 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 원
16	이정희 최정준	『주역』 「건괘(乾卦)」의 상반상성(相反相成)의 세계관(世界觀)에 대한 고찰(考察) —전일 (全 一)과 환원(還元)의 관점을 중심으로 —	동양문화연구 28	동양문화연구원
17	김영호	『논어』 '학이불사장(學而不思章)' 고석(考釋) - 특히 수양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 회
18	임태승	"계씨장벌전유(季氏將伐顓臾)"장의 실상(實 狀)과 공자 비판의 함의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19	임태승	"욕거곡삭희양(欲去告朔3羊)"에 대한 공자 비 판의 함의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20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1) -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1	임옥균	아마가 소코[山鹿素行]의 『맹자』 해석 (1) - 주 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2018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 전년도와 같이 『주역』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역』분야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많 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권호용의 논문은 『주역』의 화 택규(火澤睽)괘가 가진 '어긋남'의 이치가 사람이나 동물의 시각경로 에 구현되어 있는 자연법칙을 요약하여 논증하였다. 필자는 '보는 수레 (見輿)', '본래의 지아비(元夫)'와 같은 괘사(卦辭)와 효사(爻辭)를 구성하 는 낯선 표현들이 안구(眼球)와 뇌 속의 시각경로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작용을 가리키는 은유적 선언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필자는 주역의 64괘가 모두 사람의 몸과 자연의 사물이 작용하는 원리로부터 그 요점을 추출한 것이라면, 『주역』은 이제 심법(心法)이 아닌 과학과의 만남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신정원의 「『주역』의 자연관찰과 과학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주역』에서 발견한 과학적 사유의 흔적을 통해 그것이 현대과학의 이론들과 공유될 수있는 지점을 논하였다. 그 근거는 주역에 제시된 자연관찰과 방법론 등이다. 나아가 『주역』의 주요개념들에 나타난 현대자연 과학적 함의를고찰하였다. 권호용과 신정원은 현대과학과 『주역』 사이에는 이상과현실만큼이나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으나, 『주역』에 온축된우주나 생명의 법칙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독창적인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 두 논문은 『주역』과 현대과학을 접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주역』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무학의 논문은 고대 상례에 관련된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문헌인 『의례』의 상복제도에 관하여 선진 제자서의 상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고대 상복제도의 원형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전년도에 서정화는 『춘추』의 왕력(王曆)을 몇 편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2018년에는 『춘추』 경문에서의 묘(廟)·궁(宮)에 대한 주대(周代)의 쓰임 사례를 연속적으로 고찰하였다. 필자는 『춘추』 경문에 보이는 묘와 궁의 언급들 속에서 그것들은 일정 부분 사당(祠堂)의 기능이 있긴 하였지만, '천자7묘'나 '제후5묘'라는 사당으로서의 묘수제 규정에 의한 그 기능만을 갖추기 위해 조성한 건축물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필자는 『좌전』에서 묘·궁에 대한 집중적

인 고찰을 하였다. 기존의 『춘추』 연구에서는 주로 『춘추』의 기록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과 철학적인 담론을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전년도에 왕력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고 2018년도에는 주대 (周代)의 묘(廟)·궁(宮)의 쓰임사례의 실체를 고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혁	순자사상(荀子思想)의 사회철학적(社會哲 學的) 함의(含意)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2	김정겸	선진유가(先秦儒家)의 "덕(德)" 사상(思想) 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철학과
3	임병식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 선진유학에서 주희까지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철학과
4	조민환	계씨(季氏) 참월(僭越) 행위에 대한 유가(儒家) 예악론적(禮樂論的) 고찰(考察): '계씨팔일무어정(季氏八佾舞於庭)'등 계씨(季氏) 참월(僭越) 행위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5	홍성민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 - 맹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 으로 -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6	최영진	욕구(欲求)에 대한 맹자의 인식과 성리학적 (性理學的) 전개 - 인심도심(人心道心說)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학 54	인문과학연구소
7	신은화	수치심과 인간다움의 이해-누스바움과 맹 자의 수치심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8	한국동서철학회
8	진예숙	『맹자』 인용시 연구 – 성선설(性善說)을 중심 으로 –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김여진	순자의 조어(造語): 위(僞), 예법(禮法), 후왕 (後王)	유교사상문화연 구 74	한국유교학회
10	진함	『성자명출(性自命出)』의 심론(心論)과 『순자』 의 심론(心論) 비교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11	이명수	순자철학에서 욕망 처리와 마음의 역할	동양철학연구 73	동양철학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2	이경무	「성악(性惡)」편의 논리와 구조	철학 논총 91	새한철학회
13	정영수	체화된 감정으로서 정(情) - 순자철학을 중 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103	대동문화연구원
14	조원일	환담(桓譚)의 형신(形神)사상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15	조원일	환담(桓譚)의 신멸론 사상에 대한 연구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조원일	왕부(王符)의 천인관계론(天人關係論) 연구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17	조원일	왕충(王充)의 생사관(生死觀) 연구	중국학 논총 59	한국중국문화학회
18	이원석	이고(李翺)의 성선정악설(性善情惡說) 연구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	조형근	동중서의 음양천도관(陰陽天道觀)과 자연 철학적 세계	새한철학회 학술 대회 발표 논문 집	새한철학회
20	황인석	「학기(學記)」와 「대학(大學)」의 연계성 연구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21	양순자	예악(禮樂)에 의한 화합: 거리두기(別異)와 같아지기(合同) 사이에서	대동철학 84	대동철학회
22	조원일 김 종 규	중국 유가의 혈연문제와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	퇴계학 논총 32	퇴계학부산연구원
23	안승우	『주역』의 죄와 벌(I): 개인적 죄와 벌에 대한 윤리적 접근	범한철학 89	범한철학회
24	전광수	유가 천명의 역학적 해석 – 천명과 인성론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	대동철학 84	대동철학회
25	정병석	금수(禽獸)와 성인(聖人)의 사이'인금지변(人 禽之辨)'과 '성아지변(聖我之辨)'을 통해 본 선진유학(先秦儒學)의 인간관	대동철학 85	대동철학회
26	김세종	선진 유가의 지식론 연구-유가 사상의 앎 의 유형 고찰-	동양철학연구 95	동양철학연구회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26편으로, 대부분이 선진시대와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이다. 그 외에는 한대(漢代)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동중서·환담·왕부·왕충과 당대(唐代)의 이고 등의 인물을 연구한 논문이고, '덕(德)'이나 '생사관', '성인(聖人)'등과 같이 철학개념을 주제로 삼은 논문 등이 있다. 박사 논문 중에서 김정겸의 논문은 선진유

가(先秦儒家)의 덕(德) 사상을 서주초기(西周初期)로부터 순자에 이르기 까지 개괄하여 밝히고 있다. 필자는 덕(德)과 의(義)의 분화와 관련하여 유가(儒家)가 말하는 '덕(德)'의 함의가 처음부터 '정치'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필자는 선진 유가의 '덕(德)' 사상은 공자 에게서 토대가 마련되고, 곽점초간(郭店楚簡)의 『오행(五行)』 등에서 선 험적인 덕성(德性)에 기초한 도덕행위를 '덕지행(德之行)'이라 하고, 이 러한 덕성(德性)에 기초한 도덕행위를 '행(行)'으로 구분하는 등의 분기 가 있고, 이 가운데 '덕지행(德之行)'은 맹자가 계승하였고, '행(行)'은 순 자가 계승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가 윤리학에 대 한 많은 연구들이 도덕의 인성론적 기초를 중심으로 하여 유가의 윤리 학을 덕 윤리학의 일종으로 생각한 것에 비해, 『논어』에서 곽점유간(郭 店儒間)들에 이르기까지 유가 윤리학은 각색윤리(角色倫理) 즉 역할 윤 리학적 성격이 보다 강하며, 비록 맹자에게서 덕성을 기초로 하는 윤 리학 건립 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맹자』 전체에 서 강조되는 것은 역시 역할 윤리학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 다. 이 논문의 특징은 선진(先秦) 유가(儒家) 윤리학의 분기와 특징을 밝 히기 위하여 서주초기(西周初期)부터 춘추시기(春秋時期)까지의 '덕(德)' 관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공자의 덕(德) 사상을 고찰하였으 며, 공자 이후의 유가(儒家) 덕(德) 사상의 전환과 발전을 고찰하기 위해 곽점유간(郭店儒問)을 분석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세종의 논문은 지식 체계로서의 유가 사상이 전제하고 있는 지식 론을 검토하고, 앎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유가 지식 체계의 특성을 고 찰하는데 주목하였다. 필자는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지식의 두 가지 기 준, 즉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인식 주체의 상태가 '틀리지 않음'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유가 지식론에 적용하면, 『논어』의 지식론은 앎의 대상을 사람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유가 지식론이 갖는 뚜렷한 특징은 이유 알기의 유형이며, 앎의 유형 분류는 지식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오랜 논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필자의 논지이다. 이 논문은 『논어』에 전제되어 있는 유가 지식체계의 세부 주제를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지식론과 비교하여 선진 유가의 지식론을 구축한 점이 매우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수 있다.

한대(漢代) 철학을 주제로 한 논문은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연구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연구 성과 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연구의 깊이 는 상대적으로 얕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당대(唐代)의 이고(李翱)에 관한 유일한 이원석의 논문은 이고의 성선정악(性善情惡)적 인간 본성 이론을 탐구한 것이다. 성선정악설이란, 만인의 본성은 성(誠)을 내용으로 지녀 맑고 고요하며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 선한 존재이되, 본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감정은 악하다는설이다. 필자는 이고가 본성의 내용으로 지목했던 "성(誠)" 개념과 그것이 주로 유래했던 중용 제20장을 분석 하고, 본성과 감정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 그의 마음 개념과 "사(思)"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성선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인간 측의 실천을 강조하려 했던 중용의 입장을 이고가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고가 성선설을 명목상 견지하면서도 순자적 · 도가적 본성 개념을 취하고자한까닭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예행(禮行)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

가라는 인성의 본질 문제는 중국 철학사상 가장 논란거리가 되어온 문제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이원석의 논문은 이고가 맹자의 성선설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이고 사상 이해의 관건은 본성과 감정의 관계라고 보면서, 그것에 대해 한층 더 발전된 이해를 제시하고자주력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논어』에 기반한 인성교육 모델의 이론적 기초	한국유교학회 71	유교사상문화연구
2	이시우	『논어』를 통해 본 유학의 창의성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정래	「서괘전」에 비추어 본 교육의 과정-건(乾)· 곤괘(坤卦)에서 태괘(泰卦)까지를 중심으 로-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정래	「서괘전」에 함의된 공부의 관점-태괘(泰卦) 에서 이괘(離卦)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4편으로, 2017년도 7편에 비해서는 대폭 줄었다, 2017년도의 7편은 공자의 교육 방법과 인성교육, 선진유학과 순자, 그리고 『대학』과 관련된 논문이었다. 2018년도에는 공자의인성교육과 『주역』의 괘와 교육과정을 관련시켜 연구한 논문이다. 김동민은 동양 전통 교육에서 배움의 의미를 『논어』에 기반 하여인성교육의모델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동양 전통의 교육을 통해인간은 자기완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형성하고, 나아가인간 본성의 진면목을 찾아 보존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타인과 사회로까지 확장하여 국가와인류를 위

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정래는 「서괘전」에 비추어 본 교육의 과정을 건(乾) · 곤괘(坤卦) 에서 태괘(泰卦)까지를 중심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 는 최소한 여력을 갖추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서괘전」 내용은 서양의 소위 아동중심교육, 진보교육 사상에 의하여 크게 왜곡되어 '교육'이 아닌 '아육(兒育)'이 되어버린 점을 시 정 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필자는 「서괘전」에 함의 된 교육 내용은 현대교육 이론도 포함하지 않은 형이상학적 논의를 포 함하면서 교육의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절차적 문제. 즉 교수-학습상 성 취의 문제, 교사상, 지도자상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필 자는 「서괘전(序卦傳)」의 건·곤괘(乾·坤卦)에서 태괘(泰卦)에 이르는 역(易)의 전개를 교육의 과정으로 분석한 선행논문을 토대로 『주역』의 상경(上經) 자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커다란 교육의 과정으로 파악하였 다. 필자는 상경 건괘에서 태괘에 이르는 괘서가 주로 교육의 조건에 관련되는 '작은' 교육의 과정이라면, 태괘에서 이괘(離卦)에 이르는 괘 서 (卦序)는 보다 심층적인 공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큰' 교육의 과 정이라고 제시하였다. 「서괘전」에 함의된 공부의 태괘(泰卦)에서 이괘 (離卦)까지의 관점은 상경을 교육의 '큰' 과정으로 본다는 것은 괘서에 따른 내용이 교육의 내 · 외적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의 공부 즉 '큰 성년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양의 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가 주로 공자 · 맹자 · 순자 등에 한정 되어 있었는데, 『주역』 「서괘전」에 비추어 동양적 교육의 특징을 밝히려고 시도한 점에 서 매우 독창적인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태승	공자시대 '천승지국(千乘之國)' 실상(實狀) 의 재구성	한국유교학회 71	유교사상문화연구
2	정용수	공자는 실패한 정치가인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	윤지원	선진유가전쟁관(先秦儒家戰爭觀)에 대한 소고(小考) - 공자와 맹자의 전쟁관을 중심으로-	한국유교학회 74	유교사상문화연구
4	전병술	공자의 전인적 리더십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5	이주강	맹자와 깨어있는 자본주의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6	김영민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57	한국철학사연구회
7	유영옥	순자 패도론(覇道論)의 층위 분석	대 동문 화연구 103	대동문화연구원
8	조원일	중장통(仲長統)의 정치사상 연구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2018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8편으로, 2017년도의 3편에 비해서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7년도에 정치, 경제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도 정치, 경제 분야가 고르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정용수의 논문은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 주유열국 하는 과정에 현실정치에 실패한 과정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상으로서 대동 사회를 꿈꾸었던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필자는 공자의 정치적 이상이 비록 현실정치에 부딪혀 실패한 정치가가 되고 말았지만 그가 구상한 대동의 이념은 현대의 어느 정치이론이나 국가이론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으로써 공자가 정치적으로는 현실의 벽을 초월해서 자신의 정치이론을 구상한 탁월한 정치이론가라고 주장하였다.

김영민의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필자는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이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

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고 제시하였다.

맹자의 항산·항심론과 공정한 조세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필자는 파악하였다. 맹자의 정치 경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왕도정치와 민본사상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있는 사회복지의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한다면, 오늘날의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한다면, 오늘날의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5) 기타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민향	치유적 관점에서 본 孔子의 '수양적 인간론' 연구 : '감정억압'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한의철학과
2	안승우	『주역』 도덕 체계의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3	방인	『주역』과 인공지능	철학연구 145	대한철학회

2018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3편으로 2017년도 4편과 비슷하다.

안승우의 논문에서는 인간을 은유한 익숙한 타자로서의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주역』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필자는 보편성과 상황성을 아우르는 『주역』의 도덕체계가 인공지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인공 지능의 도덕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실수 보완에 관한 문제,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한 직관적·분석적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인간을 은유한 익숙한 타자로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시간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낯선 타자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요한 논지이다. 기타연구 논문들은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하여 융복합적인 성격을 떤 논문이다. 이러한 연구 형태는 최근의 학문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보인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본 보고서 에서 기록된 62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 중된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업적이며 동시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술 조사 보고서에 각각 논 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일반논문 2편을 선별하여 그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임태승의「"계씨장벌전유(季氏將伐顓臾)"장(章)의 실상(實狀)과 공자 비판의 함의」이다. 이 논문은 계강자(季康子)가 전유 (顓臾)를 공격하려 한 일을 두고 공자와 염유(冉有)가 논박을 펼치는 내용이다. 여기서 계강자(季康子)는 전유(顓臾)가 반란을 꾀하므로 노(魯) 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실력자로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염유(冉有)는 현실주의적 시각에 의해 계강자(季康子)의 입장에 동조한다. 이에 대해 공자는 전유(顯臾)라는 나라를 정명(正名)의 각도에서 규정함으로써, 계강자(季康子)를 예악붕괴(禮樂崩壞)를 일삼는 권력자로 비하했고 염유(冉有)의 강변은 겉과 속이 다른 자의 변명으로 폄하했다. 필자는 계강자(季康子), 염유(冉有), 공자 각각의 입장과 의도를살피고 종합하여 공자와 염유(冉有)의 갈등을 크게 보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양면에 대한 이중적 현실인식은, 그 자체로 공문(孔門)의 본질적 가치라고 파악하였다.

"계씨장벌전유(季氏將伐顓臾)"장(章)에 대한 공자의 입장과 의도는 공자가 주례(周禮)라는 사회정치질서가 천하의 안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보루라 보고 비례(非禮)의 참월행위를 극도로 비난하고 왕도(王道) 정치의 구현을 힘써 설파했다는 점은 별반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계 강자(季康子)의 입장과 의도에 대하여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계강자(季康子)가 전유(顓臾)를 공격하려 한 행위는, 공자가 비난한 것처럼 무도(無道)한 행위가 아니라 노(魯)나라 전체의 화평(和平)을 위한 정책 집행이라고 보았다. 즉 '민복(民服)'의 상황 아래라면 이는 단순한 참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계강자가 '민복(民服)'을 얻었다면 공자가 생각하는 '민복(民服)'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자는 애공(衰公)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民服)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굽은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이 복종하고, 굽은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정직한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다. "고 대답하였다. 군주는 사람을 등용함에 공정하게 해야 백성을 의(義)로써 복종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시 노나라 정치는 세 대부의

집안에 의해 전횡되었기 때문에 공자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그런 데 필자는 계강자(季康子)가 노(魯)나라 군주를 대신해 '민복(民服)'을 획 득했다면 이는 또한 그가 족민(足民)에 성공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만약 계강자(季康子)가 족민(足民)에 성공하였다면 공자는 왜 염유(冉有)를 성토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공자는 당시 계 강자(季康子)가 노나라 정사를 전횡하여 군주의 권한을 빼앗고 백성을 착취함으로써 주공보다 부유하였는데, 염유(冉有)가 계씨의 가신이 되 어 그를 위해 세금을 걷어 재산을 더 늘려 준 것을 책망하였다. '민복(民 服)'에 관하여 맹자는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으로 복 종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복종자가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다. 덕 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부터 기뻐서 진실로 복종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칠십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하는 것과 같 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필자는 민복(民服)을 얻은 계강자(季康子)가 무 도(無道)한 전유(顓臾)를 토벌한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 시 계강자(季康子)가 권력과 민심을 장악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보면 백 성들은 결코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항거할 힘이 부족하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계강자(季康子) 의 입장에서 노(魯)나라 군주는 대대로 위신을 잃었고, 계씨는 공을 닦 아 노(魯)나라 군주를 돕게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 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임태승의 논문은 기존의 『논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도덕철학적 각도로만 소재를 다루지 않고, 정치·경제·군사·제도·국제관계·국가행정 등의 물적 토대를 감안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였고, 고증학적 및 문헌고고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계강자(季康子), 염유(冉有), 공자 각각의 관점에 대한 다면적 조망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해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학술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홍성민의 「맹자 사상에서 도덕의 내재성 문제-맹자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이다.

필자의 말처럼, 맹자와 고자의 의외(義外) 논쟁은 고대 중국철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테마로 주목받아왔다. 시마다 겐지는 『주자학과 양명학』에서 송학 출현 이후의 사상사는 내와 외의 대립, 투쟁의 역사라고 제시하였다. 물론 송학의 주장은 '내,외'의 구분 없이 '내,외'를 합치시킨다는 것이다.

필자는 고자가 인간의 지각에 도덕적 인지 기능은 없고 단지 외재 사물을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고, 그 지각기능이 외재적 도덕규범을 일방적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반면 맹자는 그와 반대로 외재적 대상 자체에 도덕적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도덕 지각이 대상에서 도덕적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대상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고자와 맹자의 의외(義外) 논쟁은 인간의 지각 기능에 도덕적 능력이 내장하는가의 문제였다고할 수 있다. 고자와 맹자의 차이는 지각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했느냐에 달려 있는데, 고자가 대상의 속성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수동적 지각기능을 주장했다면, 맹자는 대상으로부터 도덕적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의 능동적 도덕지각기능을 강조했다. 이점에서 고자와 맹자의 의외 (義外)/의내(義內)의 윤리학적 입장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필자는 나아가 맹자의 도덕지각(양지)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부단히 확장되어야 하며, 양지(良知)의 확장을 위해 현실의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공부, 즉 궁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주희의 맹자 독해를 고찰하였다. 이 독법에 따르면, 도덕이 자기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에만 천착하여 현실 사태로 양지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양지는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그 실천적 의미를 상실해버릴 것이고 의내(義內)로 말하고자 했던 도덕 주체의 의의도 소실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양지가 현실에서 실현되고 현실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궁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희의 생각이자 맹자의 생각이었다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의문점을 제기해 보겠다. 맹자는 양지양능에 대하여 "웃 을 줄 알고 손을 잡고 다닐 만한 아이가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알 지 못할 리 없으며, 그 자람에 미쳐서 그 형을 공경하는 것을 알지 못할 리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인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의이 니, 다른 까닭이 아니라 천하에 달(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마음은 바깥에서 이르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내 성품의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내 성품 의 의이니, 이것이 바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천하에 달(達)하 는 것이다. '달(達)'은 천하에 통하는 것으로 곧 확충을 말한다. 별도로 양지(良知)의 확장을 위해 현실의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공부, 즉 궁 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주희의 관점이 곧바로 맹자의 생각과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주희는 인식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실 천을 못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여겨 궁리의 공부를 강조하 였다. 즉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양지를 확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실천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맹자는 사람들 로 하여금 양지를 확충하여 인의의 덕을 이루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렇다면 양지가 현실에서 실현되고 현실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궁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희의 생각이자 맹자의 생각이라고 한 필자의 관점은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부동심〉장에 나타난 고자와 맹자의 사상적 차이점을 재조명하면서 맹자 도덕지각론의 궁극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필자는 〈부동심〉장에 대한 퀑로이슌(Kwong-koi Shun, 信廣來)의 독법에 반대하고 주희의 이해를 따라, 고자는 윤리적 교리에 대한 이해를 거부한 도덕부정론자였던 반면 맹자는 외부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내면의 도덕지각에 조응함으로써 내외의 도덕적 융합을 이루려했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맹자에 있어 도덕의 근거와 기준이 주체의내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로부터 확장되고 외부의 도덕적 이치를 포괄하는 도덕지각은 내외를 조응하고 융합하는 전체론적 도덕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이해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로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퀑로이슌의 독법에 의하면 맹자의 관점에서는 의가 외재적이라는 고자의 주장은 의가 심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며, 내재적이라는 말로 표현한 의는 심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퀑로이슌은 맹자의 논평을 통해 맹자가 고자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폈을 뿐 고자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고, 도덕외재론으로는 보았지만 필자의 말대로 고자를 도덕부정론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둘째, 맹자는 호연지기를 설명하면서 "그 기가 의와 도에 짝하니, 이 것이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고 말하였는데, 학자의 관점에 따라 논란 이 많은 구절이다. 필자는 도덕적 만족감이 없다면 호연지기는 도의(道 義)의 도움을 얻지 못하여 스스로 축소되고, 이러한 맹자의 발언은 주희의 설명과 잘 부합된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주희의 생각은 호연지기가 없으면 몸이 주리게 된다는 뜻이고, 주희 당시 여자약(呂子約)은 도의가 없으면 기가 주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호연지기와 도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맹자의 본래의 뜻이 주희의 설명과 반드시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논문은 맹자와 고자의 의외(義外) 논쟁을 도덕지각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나아가 맹자의 윤리학을 주제로 도덕 내재성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였다. 필자는 고자의 사상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에 대비되는 맹자사상의 특징을 조명하였다. 맹자 의내설(義內說)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심으로 윤리학의 독자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관건이된다는 점에서 맹자 윤리학 연구의 지평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5. 평가와 전망

2018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62편이다. 2016년도 65편, 2017년도 73편과 비교 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대별로는 선진 시대가 전체 62편 중 55편으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했고, 진한시기 6편으로 예년과 같으며 당나라시기 1편이 있다. 올해의 분석에서 주 목할 점은 전체 62편의 논문 중에 박사논문이 4편으로 2017년도 전체 73편의 논문 중에 18편에 비하여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특히 박사 논 문은 학문 후속 세대가 꾸준히 배출되어야 하는데, 박사 논문이 대폭 줄었다는 점은 향후 이들 신진 학자의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없어 학문의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 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 특징은 2018년에도 공자에 대한 연구가 13편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13편중 1편이 박사논문이지만 일반 논문은 공자 철학의 사상사적 의미를 밝힌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로 대표되는 한대와 당대의 이고 유학사상가들의 연구가 끊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당 연구 분야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경학사상, 교육 분야가 예년과 비슷하고, 정치 및 경제 분야가 작년의 3편에 비해 8편으로 대폭 늘었고, 철학 분야는 작년의 36편에서 26편으로 줄었다.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관련 연구가 작년의 13편과 비슷한 11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도 『주 역』의 괘효와 과학적 사유의 흔적을 통해 그것이 현대과학의 이론들과 공유될 수 있는 연구나, 『주역』관련 출토 문헌을 분석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역』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2018년도 경학 연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춘추』・『좌전』・『의례』・『예기』등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 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선진 유학의

경전 등과 인공지능의 접목을 통하여 융복합적 지식 축적과 내외 조화의 인격형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장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학사상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발전 할 수 있도록 연구의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